

세계 결핵의 날과 로버트 코호

-결핵퇴치의 길을 열어준 의학사상 역사적인 날-



▲ 제13회 세계 결핵의 날 기념식 장면.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이날은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호가 지금으로부터 114년 전인 1882년 3월 24일, 당시 만연하고 있던 여러 질병중 가장 많은 인명을 앓아감으로써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진 결핵의 원인균을 발견한 의학사상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날이다.

그리하여 수천년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 결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역사적인 1882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세계 민간 항결핵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은 결핵균 발견 100주년이 되는 1982년에 3월 24일을 “세계 결핵의 날”(Universal Tuberculosis Day)로 제정 공포하였다.

이 날은 각종 전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인류에게 의생물학이 가장 크게 공헌한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다. 그가 결핵균을 발견할 당시만 해도 유럽인 7명중 1명이 결핵으로 사망할 정도였으며 결핵이 영아 사망원인의 1/3을 차지했다.

로버트 코흐는 결핵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질병들의 병인(病因)도 발견 했는데 그러한 업적은 그후 많은 다른 과학자들이 사람을 비롯한 각종 동식물의 질병 원인을 밝히는 실로 의과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미생물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 세계 결핵의 날은
수천년간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 결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역사적인 날이다. ■

그러나 그는 결핵균을 발견한 이후 곧 결핵치료법을 탐구하기 시작했으나 직업 및 여러 이유로 꾸준히 연구에 전념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890년 베를린에서 열렸던 제10차 국제의학회에 투베르쿨린 이 인체에 큰 악영향을 주지않고 결핵진전을 막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당시 정부의 압력으로 불완전한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셈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결핵의 역학적 조사방법과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는 또 1901년에 우형(牛形)결핵균과 인형(人形)결핵균을 분리시켜 결핵 화학요법제 개발의 길을 열어주었다.

로버트 코흐는 1906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했으며 이 기념강연에서 환자의 격리로 결핵의 전염을 방지, 환자의 배설물 멸균, 진료소에서의 진료 등 결핵치료 원칙을 발표하여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까지 원용되고 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와 국제항결핵 및 폐질환연맹의 후원하에 대한결핵 협회는 로버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을 기념하고 이 땅에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다짐으로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 결핵 사업의 숨은 공로자를 찾아 복지자대상을 수여하게 된다.

또한 결핵과 관련한 기념강연의 자리를 마련해 아직도 심각한 보건문제로 남아있는 결핵 실상의 재인식과 그 인식으로 결핵퇴치의 길을 앞당기는 계기를 갖는다. †